

고교계열에 따른 청년기 경력패턴 유형 비교

최수정¹⁾ · 김성남²⁾

요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7차년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력패턴을 탐색하였다. 7년이라는 시간은 개인의 경력패턴을 확인하기에는 다소 짧은 시간이나, 19세부터 25세까지는 전 생애의 안정적인 경력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일반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의 1년 단위의 경력을 8개의 하위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일반고 졸업자의 경우 “고졸후 떠돌이형”, “대졸후 취업형/대학재학형”, “병역 후 대학복귀형”, “전문대 진학 후 떠돌이형”, “전문대 졸업 후 취업형”의 5개 유형의 경력패턴이 확인되었다. 둘째,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우 “대학재학형”, “고졸 후 떠돌이형”, “고졸후 취업형”, “전문대학 및 미상 혼합형”의 4개 유형의 경력패턴이 확인되었다. 한편 일반고 경력패턴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성별, 가정특성, 수학성적, 교육포부, 자신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변인 등이 특성화고 경력패턴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성별, 가정특성, 전공 및 자격증, 교육포부, 리더십, 가정경제수준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청년기에 이루어지는 직업탐색과 직업경험은 생애전반에 걸친 경력에 영향을 미친다. 경력 초기단계에 있는 개인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고 이를 수행함으로써 그들이 생애기간동안 필요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규교육 이수 전공적합도나 직무선호도가 높은 직업에 안정적으로 취업한 개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인적자원개발의 축적이 훨씬 용이해 지는 만큼 향후 경력개발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대학·전문대학 동안 잦은 휴학 및 중단이 있거나 미취업 상태가 긴 사람들은 본인이 축적한 인적자본이 감가상각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축적 기회를 계속 놓치게 될 것이다(박진희, 김용현, 2010).

청년기의 경력패턴은 비단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노동시장을 결정하고, 또 그 노동시장에 의해 다시 영향을 받는 순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교육실 마이스터고지원센터

2)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고용 유연화와 고학력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변화가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한정되어 있는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로 고학력 구인자가 몰리도록 하고, 고용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거나 임금수준이 높지 않은 일자리에서는 구인난을 겪도록 만들고 있다. 게다가 안정성이 보장된 괜찮은 일자리의 폭은 늘어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와 같은 여건은 개인이 고등교육 기회를 계속 찾게 만들거나 미취업 상태를 길게 만든다.

특히 고등학교 계열에 따라 청년기에 진행되는 경력패턴은 매우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과거 70~80년대에는 직업교육기관 졸업자들이 바로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았고, 일반 고등학교 출신자들의 고등교육 진학 및 졸업 후 취업 역시 단선적인 패턴을 띄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특성화고(舊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부분이 대학·전문대학으로 진학하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의 경력패턴은 좀 더 다양화 되었다. 게다가 특성화고 출신자들의 대학·전문대학 중퇴비율이 매우 높음에 따라, 이들이 과연 어떻게 노동시장으로 이동하고 정착하였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2004년에 고3이었던 일반고·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의 7년간의 경력패턴을 탐색함으로써 이들의 고등교육 진학 및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상황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력패턴의 일반적인 양상을 확인함은 물론, 고등학교 계열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분석대상이 졸업하는 시점인 2005년의 경우 특성화고에서의 무분별한 대학 진학이 이슈화되었던 시기였던 것을 고려했을 때, 최근의 고졸자 취업 촉진과 관련한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일반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의 청년기 경력패턴과 그 유형을 확인하고, 이것이 고교계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일반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의 청년기 경력패턴을 탐색한다.
- 둘째, 일반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의 청년기 경력패턴을 유형화한다.
- 셋째, 일반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력패턴 유형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구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년기의 경제활동상태 및 경력개발

청년기에는 크게 학업, 구직, 근로의 상이한 상태(status)가 공존한다. 그러나 청년기의 경력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대체로 일정 시점(예: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에서의 취업현황이나, 전체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를 확인하는 등에 치우쳐있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개인의 경력에 관한 연구가 일정 시점의 경력의 상태에만 관심을 갖거나, 두 시점의 경력 이동정도에만 관심을 기울여왔다는 지적(최수정, 2010)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마치 스냅샷을 찍듯이 개인의 경력의 단편을 확인하기에는 적절하나, 연속적인 궤적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우선 전반적인 청년기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은 가운데 고학력화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연령이 늦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학력별로 보면 고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4.1%로 전문대졸(81.8%), 대졸(75.6%)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규교육 졸업 후에도 노동시장 밖에서 머물러 있는 경력준비기에 있는 청년들은 육아·가사, 심신장애, 군입대대기, 결혼준비 등 순수 비경제활동을 빼고는 주로 취업준비를 하거나 그냥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5월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은 약 49만 명으로, 비경제활동청년인구의 9.1%였으며, 그냥 쉬고(NEET) 있는 자는 비경제활동청년인구의 4.5%였다. 또한 경력준비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은 73만 명으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학력에 따라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비율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 취업준비를 하는 비중이 높은데 반해, 고졸자의 경우 별다른 이유 없이 쉬고 있다는 비중이 높았다.

〈표 1〉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2010년 5월)

(단위: 천명, %)

구분	생산가능 인구	경제활동 인구	경활 참가율	취업자	고용율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활동 인구	
전체	9,720	4,301	44.3	4,027	41.4	274	6.4	5,418	
성	남성	4,779	2,053	43.0	1,901	39.8	152	7.4	2,726
	여성	4,942	2,248	45.5	2,126	43.0	122	5.4	2,693
연령	19세 이하	3,336	224	6.7	207	6.2	18	7.9	3,111
	20-24세	2,640	1,316	49.8	1,29	46.2	96	7.3	1,325
	25-29세	3,744	2,762	73.8	2,602	69.5	160	5.8	982
학력	초졸 이하	275	17	6.2	13	4.7	4	24.0	258
	중졸	2,367	102	4.3	95	4.0	7	6.5	2,265
	고졸	4,004	1,768	44.1	1,659	41.4	109	6.1	2,236
	초대졸	1,425	1,166	81.8	1,092	76.7	74	6.3	259
	대졸	1,585	1,198	75.6	1,117	70.5	81	6.8	387
대학원졸	64	51	79.4	51	79.4	-	-	13	

한편 박진희, 김용현(2010)의 청년기 경력개발 경로 유형 연구 결과는 좀더 장기간에 걸친 청년기 경력패턴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력초기에 있는 청년들의 경제활동상태를 기반으로 경력패턴을 유형화한 결과 총 7개의 유형이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전반적으로 청년기의 경력패턴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노동시장진입 퇴장반복형으로 전체의 26.0%를 차지하였다. 이밖에도 노동시장퇴장형(14.3%), 노동시장재진입형(11.2%) 등의 불안정한 형태의 경력패턴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상당히 긴 시간동안의 청년기 경력의 이동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을 확인하기에는 제한이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표 2> 청년기 경력개발 경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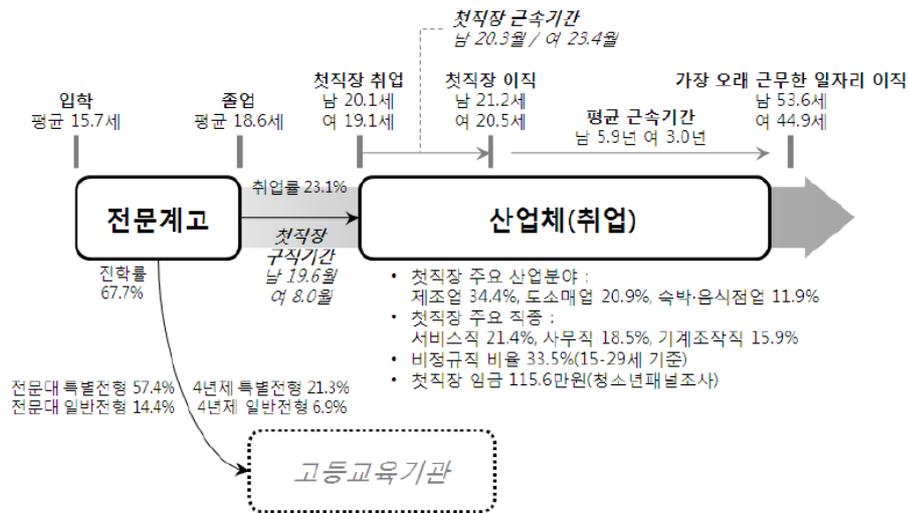
유형	사례수	비율	내용
①취업형	156	15.6%	경력초기 내내 취업상태 유지
②노동시장유지형	56	5.6%	경력초기내내 취업, 실업을 반복
③노동시장진입형	199	19.9%	비경활 상태에 있다가 노동시장 진입
④비경제활동형	75	7.5%	경력초기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⑤노동시장퇴장형	143	14.3%	경력초기 취업상태에 있다가 노동시장 퇴장
⑥노동시장재진입형	112	11.2%	경력단절 후 취업 중이거나 훈련 이수 중
⑦노동시장진입퇴장반복형	260	26.0%	노동시장 진입과 퇴장을 계속 반복

자료 : 박진희, 김용현((2010). 경제활동 및 직업이력 유형별 경력개발경로 분석-경력초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용정보원

2. 특성화고 출신자의 졸업 후 진로

이 연구의 주요한 초점은 고등학교 계열에 따라 청년기의 경력패턴이 서로 다를 것이라는 데 있다. 특히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특성화고 출신자들의 경력에 관심을 갖고 있다. 우선 가장 최근에 발표된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특성화고 출신자들의 졸업 후 진로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고용정보원(2011.2.2.)의 “2011년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에 따르면 .2011년 전체 특성화고 졸업자 중 약 35.3%가 대학에 미진학한 상태이며, 졸업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기준으로 미진학자의 75.9%가 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은 특성화고 출신자의 졸업 후 진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최동선 외(2010)에 따르면 특성화고 졸업자의 약 67.7%가 특별전형 등을 통하여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 진학한다. 반면 23.1%는 취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첫 직장을 갖기까지 소요되는 평균 구직기간이 남학생은 18.6개월, 여학생은 8개월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2/3 정도는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남자는 5.9년, 여자는 3.0년으로 상대적으로 근속연수가 짧은 편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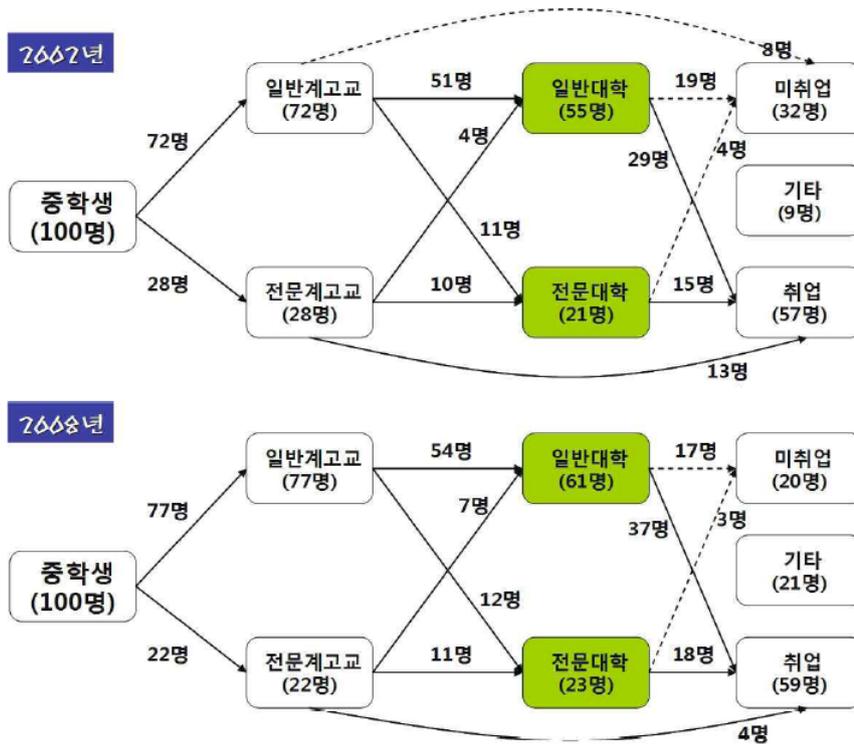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0. 5,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0. 5,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0. 8,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그림 1] 전문계고 졸업자의 진로경로 요약

자료: 최동선 외(2010), 전문계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특성화고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는 절반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으로 진학하고, 나머지 20~30%의 학생들이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짧은 근속기간인데,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2011.2.2.)의 발표에 따르면, 향후 1년동안 현재 취업상태를 유지할 계획인 경우가 4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다양한 원인을 추측할 수 있으나, 남학생의 경우 병역의무에 따른 이탈, 전체적으로는 낮은 임금, 인사에서의 대졸자와의 차별 관행,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 선택 등을 들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특성화고 출신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자들의 졸업 후 경력패턴이다. 이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이수하였는지, 그리고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림 2]에서는 제한적이거나 전문계고출신 고등교육기관 진학자들의 졸업후 진로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일반계고와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중도탈락 및 미취업의 수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림 2] 정규학교 간 인적자원 배출 경로

자료: 이승근(2011), 우리나라 전문대학 현황과 선진화 방안, 대학교육체제 개편 12차 연속 토론회 자료집.

Ⅲ. 연구의 방법

1. 분석의 자료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에서 고3 패널의 1차년도부터 7차년도 자료(2004년~2009년)까지의 자료를 모두 사용하였다. 1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총 2,000명의 특성화고(舊 실업계고)와 2,000명의 일반계고 학생들이 표본에 포함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2. 분석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경력패턴의 시계열적 속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최적일치법(OM: Optimal Matching)을 활용하였다. 최적일치법은 1980년대부터 사회과학 전반에 걸친 '시간의 구조화'에 대한 다양한 시도 중 하나로서, 시간의 궤적(trajectories)을 분석하기 위해 애보트(Abbott, 1995)가 제안한 사건 배열 분석(event sequence analysis)방법이다. 이때 질적변수로 이루어진 사건 서열들 간의 유사성 분석을 위해 도입된 개념이 바로 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이다. 원래 단백질과 DNA 서열분석을 위해 분자생물학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최적일치법이 사회과학분야에 도입되면서, 이론적으로만 제안되었던 사건 서열 분석이 경험적인 연구에 실제로 적용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최적일치법은 전체 사건 혹은 상태의 배열형태를 지닌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최적일치법의 기본 발상은 다음의 가상의 두 사람의 직업경력을 살펴봄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최적일치법의 기본은 이러한 자료에 대해, 각 시점에서의 상태를 몇 번이나 교체(substitution), 삽입(insertion), 혹은 삭제(deletion)하는 조작을 하여야 A의 경력패턴과 B의 경력패턴을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따라서 두 사례간의 근접성을 계산하는 것이다.

〈표 3〉 최적일치법 이해를 위한 사례

나이	20	21	22	23	24	25
A	-	사무직	사무직	사무직	판매직	판매직
B	사무직	사무직	사무직	전문직	전문직	전문직

〈표 3〉을 보면 A의 경우는 21세에 사무직으로 직업경력을 시작하여 24세에 판매직으로 직업을 바꾸었으며, B는 20세에 사무직으로 직업경력을 시작하여 23세에 전문직으로 직업을 바꾼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21세~22세까지의 두 사람의 직업경력은 동일하므로 아무런 조작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두 배열을 정확하게 일치(matching)시키려면 일련의 조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세의 경우 A의 경력에 사무직을 삽입하던가, B의 경력의 사무직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23세의 경우 사무직과 전문직을, 그리고 24세의 경우는 판매직과 전문직을 서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각 조작이 하나의 계열 내에서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열 쌍(pair)의 대응되는 단위 혹은 상태를 비교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때 각각의 단위 혹은 상태를 대응시키는 기준이 바로 시간축(clock)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축은 연구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 대체로 경력패턴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연령이나 입직 시점 이후의 시간의 경과를 시간축으로 활용한다.

두 배열 쌍에 대해 이러한 일련의 조작을 통하여 서로 일치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한 가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 ‘최적(optimal)’의 의미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최적일치법에서는 두 배열 쌍의 일치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의 최적의 해를 선택하기 위하여 교체, 삽입 및 삭제에 일종의 비용(cost)이 초래된다고 보고, 가장 저렴한 비용이 드는 일련의 조작을 최적의 해로 선택하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교체를 여러 번 하면 할수록 비용은 늘어나고 두 배열 쌍간의 거리는 그만큼 멀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삽입과 삭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배열 쌍을 일치시키기 위한 일련의 다양한 조작 가운데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선택하고, 해당 조작에 들어간 비용을 토대로 이들 배열간의 전반적인 거리의 값을 부여하게 된다.

한편, 최적일치법을 통해 도출된 배열 쌍간의 거리값을 토대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를 실시하였으며, 경력패턴 유형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항로지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통계프로그램으로는 R 2.14.1과 SPSS 18을 활용하였다.

3. 변인의 정의 및 구성

가. 경력

일반적으로 경력패턴(career pattern)이란 ‘개인의 일생에 걸친 경력발달의 계열적 양상(sequential characteristic)이며, 일련의 궤적(trajectories)’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력패턴은 매 순간의 경력이 누적되어 고유의 궤적을 갖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의 청년기 경력패턴은 주로 학업, 근로 그리고 구직의 상태(status)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경력의 하위 범주는 크게 ①고등학교 재학(HI: Highschool), ②전문대학 재학(CO: College), ③대학 재학(UI: University), ④대학원 재학(GR: Graduates), ⑤정규직(PE: Permanent), ⑥임시·일용직(TE: Temporary), ⑦실직·포기(EX: Exploring), ⑧미상(UK: Unknown)³⁾의 8개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하위범주가 설정된 이우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2004년)를 시간 축(clock)으로 고정하고, 1년 단위로 각 개인이 해당 시점에서 어떠한 경력을 갖고 있는지를 코딩하였다.

〈표 4〉 분석대상의 연도별 경력

계열	변인	고교(H)	전문대(C)	대학(U)	대학원(G)	정규직(P)	비정규직(T)	구직중(E)	미상(V)	소계
일반고	경력상태(1차년도)	2,000 (100.0)	-	-	-	-	-	-	-	2,000
	경력상태(2차년도)	-	348 (17.4)	1,043 (52.2)	-	32 (1.6)	21 (1.1)	323 (16.2)	233 (11.7)	2,000
	경력상태(3차년도)	-	268 (13.4)	873 (43.7)	-	19 (1.0)	16 (0.8)	86 (4.3)	738 (36.9%)	2,000
	경력상태(4차년도)	-	125 (6.3)	556 (27.8)	-	58 (2.9)	32 (1.6)	56 (2.8)	1173 (58.7)	2,000
	경력상태(5차년도)	-	104 (5.2)	750 (37.5)	-	114 (5.7)	40 (2.0)	56 (2.8)	936 (46.8)	2,000
	경력상태(6차년도)	-	132 (6.6)	791 (39.6)	18 (0.9)	243 (12.2)	62 (3.1)	105 (5.3)	649 (32.5)	2,000
	경력상태(7차년도)	-	93 (4.7)	681 (34.1)	47 (2.4)	303 (15.2)	68 (3.4)	136 (6.8)	672 (33.6)	2,000

3) 패널조사의 특성상 개인의 경력 중간에 조사에 실패하였거나, 불응하여 생기는 결측치들이 상당한 비율로 존재함. 특히 남학생의 경우 군입대로 인하여 3차년도~5차년도 까지의 결측값이 매우 많음.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측값을 선불리 대체하거나, 해당 케이스를 제거하기 보다는 결측치를 “미상”의 경력상태로 간주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음

계열	변인	고교 (H)	전문대 (C)	대학 (U)	대학원 (G)	정규직 (P)	비정규 직(T)	구직중 (E)	미상 (V)	소계
특성화고	경력상태(1차년도)	2,000 (100.0)	-	-	-	-	-	-	-	2,000
	경력상태(2차년도)	-	743 (37.2)	322 (16.1)	-	336 (16.8)	75 (3.8)	177 (8.9)	347 (17.4)	2,000
	경력상태(3차년도)	-	468 (23.4)	181 (9.1)	-	231 (11.6)	65 (3.3)	119 (6.0)	936 (46.8)	2,000
	경력상태(4차년도)	-	181 (9.1)	113 (5.7)	-	293 (14.7)	52 (2.6)	127 (6.4)	1,234 (61.7)	2,000
	경력상태(5차년도)	-	280 (14.0)	227 (11.4)	-	339 (17.0)	67 (3.4)	150 (7.5)	937 (46.9)	2,000
	경력상태(6차년도)	-	285 (14.3)	206 (10.3)	1 (0.1)	447 (22.4)	91 (4.6)	195 (9.8)	775 (38.8)	2,000
	경력상태(7차년도)	-	171 (8.6)	180 (9.0)	2 (0.1)	506 (25.3)	84 (4.2)	196 (9.8)	861 (43.1)	2,000

나. 경력패턴 관련 변인

<표 5>는 경력패턴의 특징과 경력패턴 유형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활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나타내고 있다. 1차년도(2004년)에 측정된 변인들의 경우 경력패턴 유형의 결정요인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7차년도(2010년)에 측정된 변인들은 경력패턴 유형에 속한 개인들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표 5> 경력패턴 관련 변인 : 1차년도(2004년) 및 7차년도(2010년) 측정

연도	구분	변인	일반고			특성화고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1차 년도 (2004)	일반특성	성별	2000	.56	.497	2000	.55	.497	
		고교재선택	2000	.77	.421	2000	.76	.427	
	학교만족	학교만족도	2000	3.30	.804	1999	3.41	.844	
		가정특성	가정생활만족도	2000	3.70	.910	2000	3.41	.954
	학업 성취도	정상가정	2000	.92	.267	2000	.79	.409	
		국어	2000	2.76	.891	2000	2.64	.848	
		영어	2000	2.28	1.070	2000	2.09	.968	
		수학	2000	2.63	.955	2000	2.27	.929	
		전공	N.A	N.A	N.A	1999	3.11	.960	
		자격증 유무	N.A	N.A	N.A	2000	.50	.500	
		자격증개수	N.A	N.A	N.A	1005	2.17	1.533	
		진로계획 및 경험	직업결정여부	2000	.72	.448	2000	.61	.489
			교육포부	2000	3.22	.754	2000	2.39	.757
			재학중근로	2000	.20	.401	2000	.57	.496
	적성인지여부		2000	.71	.455	2000	.58	.493	
	나에대한 인식	1(공부)	2000	2.75	.773	2000	2.65	.777	
		2(재주)	2000	3.04	.939	1999	2.96	.938	
		3(리더십)	2000	2.98	.866	1999	2.88	.895	
		4(미래꿈)	1999	3.99	.852	2000	3.71	.912	
		5(가정경제수준)	1999	2.86	.682	2000	2.64	.738	
6(친구관계)		2000	3.80	.707	1999	3.77	.747		
7(학교성실)		1999	3.58	.791	2000	3.57	.805		
격려자 존재 여부	2000	.90	.304	2000	.84	.364			

(표계속)

(표계속)

연도	구분	변인	일반고			특성화고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1차 년도 (2004)	자아관	1(적성인지)	2000	3.46	.874	2000	3.23	.914
		2(흥미인지)	2000	3.87	.778	2000	3.56	.873
		3(가치관정립)	2000	3.76	.801	2000	3.45	.843
		4(결정력)	2000	3.24	.862	2000	3.16	.856
		5(계획추진력)	1999	3.13	.801	2000	3.15	.813
		6(자존감)	2000	3.49	.802	2000	3.31	.791
7차 년도 (2010)	임금 근로자	일주일 총 정규근무 시간	500	41.67	13.053	669	46.81	12.754
		월평균 임금(만원)	453	124.12	48.189	609	130.87	44.197
		일과 전공 일치도	521	3.20	1.254	699	3.14	1.098
		일과 기술, 능력 수준	522	3.12	.810	693	3.03	.688
		일과 교육 수준	521	3.20	.734	692	3.01	.642
		업무 만족도	521	3.34	.852	696	3.31	.828
		직장만족도-근무환경	522	3.45	.963	696	3.42	.863
		직장만족도-근무시간	522	3.37	1.036	696	3.26	.963
		직장만족도-의사소통/인간관계	522	3.64	.930	696	3.58	.829
		직장만족도-임금	522	3.11	.976	695	3.17	.938
		직장만족도-개인의 발전 가능성	522	3.11	1.062	696	3.19	1.011
		직장만족도-복지후생	521	2.99	1.057	695	3.08	1.019
		직장만족도-안정성	520	3.30	1.043	697	3.38	.957
	전반적인 직장 만족도	522	3.36	.841	698	3.32	.829	
	평생직장으로 생각	521	1.84	.370	697	1.79	.408	
	구직활동 여부	519	1.78	.413	698	1.77	.421	
	구직자	지난 일개월간 구직활동 안한 이유	562	4.07	4.715	272	6.10	5.023
		취업하지 않으려는 이유	38	3.82	2.958	13	3.69	2.926
	자아관	1(적성인지)	1327	3.61	.820	1140	3.48	.827
		2(흥미인지)	1327	3.77	.778	1140	3.62	.841
3(가치관정립)		1327	3.84	.782	1140	3.69	.799	
4(결정력)		1327	3.56	.866	1140	3.50	.808	
5(계획추진력)		1327	3.56	.791	1140	3.44	.803	
6(자존감)		1327	3.83	.772	1141	3.68	.764	
행복 인식 수준		1327	1.17	.372	1142	1.21	.409	

IV. 연구의 결과4)

1. 일반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의 청년기 경력패턴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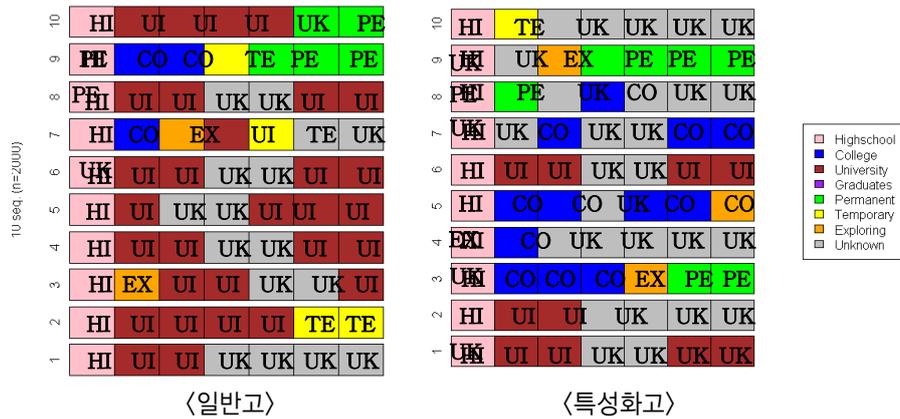
가. 기본 특성

일반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19세~25세까지의 경력패턴의 기본적인 양상을 탐색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는 향후 분석의 정교화를 위해 대략적인 경력패턴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림 3]은 각 고교계열별 졸업자 2000명의 경력패턴 가운데 10명의 경력패턴을 무작위로 추출한 결과이다. 왼쪽의 일반고의 경우 대체로 4년제 대학 입학

4) 연구결과를 제시함에 있어 경력의 하위 범주는 이니셜 형태로 서술할 예정임. 본문 상에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아래의 기준을 따름

① HI: Highschool(고등학교 재학), ② CO: College(전문대학 재학), ③ UI: University(대학 재학), ④ GR: Graduates(대학원 재학), ⑤ PE: Permanent(정규직), ⑥ TE: Temporary(임시·일용직), ⑦ EX: Exploring(실직·포기), ⑧ UK: Unknown(미상)

(UI)을 시점으로 패턴이 나뉘는 양상을 보인다. 여기에는 군대, 편입 등으로 인한 것으로 예상되는 미상(UK)의 상태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특성화고의 경우 고교 졸업 직후 4년제 대학(UI), 전문대학(CO), 미상(UK) 등으로 다양하게 패턴이 나뉘고 있다. 또한 일반고에 비해 미상(UK)의 상태가 더 많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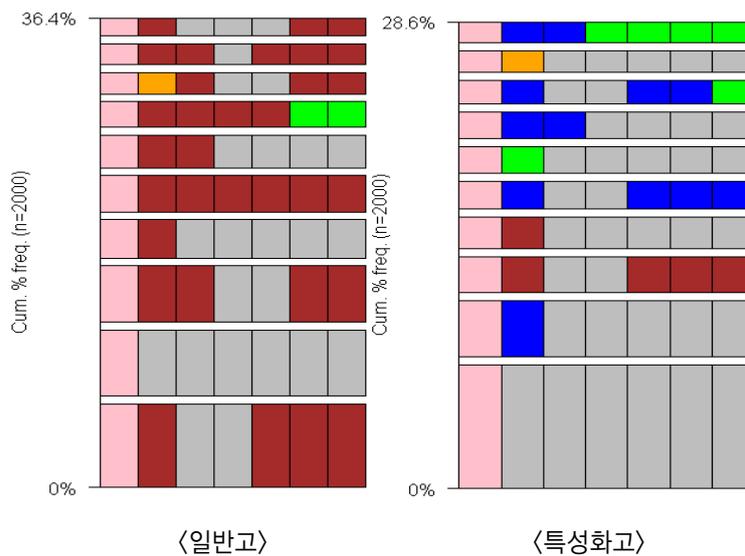


[그림 3] 일반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력패턴(무작위 10개 추출)

각 집단에서 나타나는 경력패턴의 빈도를 나타내는 <표 6>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일반고의 경우 대학에 진학 한 후 2년간의 군대 또는 미상의 기간을 거친 후 다시 대학에 복귀하여 2~3년간 유지되는 경력패턴이 각각 7.6%, 5.1%를 차지하였다. 반면 대학을 4년만에 졸업하고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의 경우 4년제 대학 진학, 군대 등의 이유로 교육경력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성화고의 경우 좀 더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먼저 고등학교 졸업 후 계속 미상의 상태인 비율이 8.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문대나 대학에 1년 재학 후 미상의 상태가 지속되는 비율도 각각 4.0%, 2.3%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정규직 취업 1년만의 미상의 상태 지속(1.9%), 전문대학 2년 후 미상의 상태 지속(1.9%), 구직활동 1년 후 미상의 상태 지속(1.6%) 등으로 교육경력/직업경력이 단절된 형태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4]는 <표 6>에서의 경력패턴의 비중을 그래프의 굵기로 표현한 결과이다. y축의 숫자는 해당 경력패턴이 전체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제시된 10개의 패턴이 일반고 졸업자의 36.4%, 특성화고 졸업자의 2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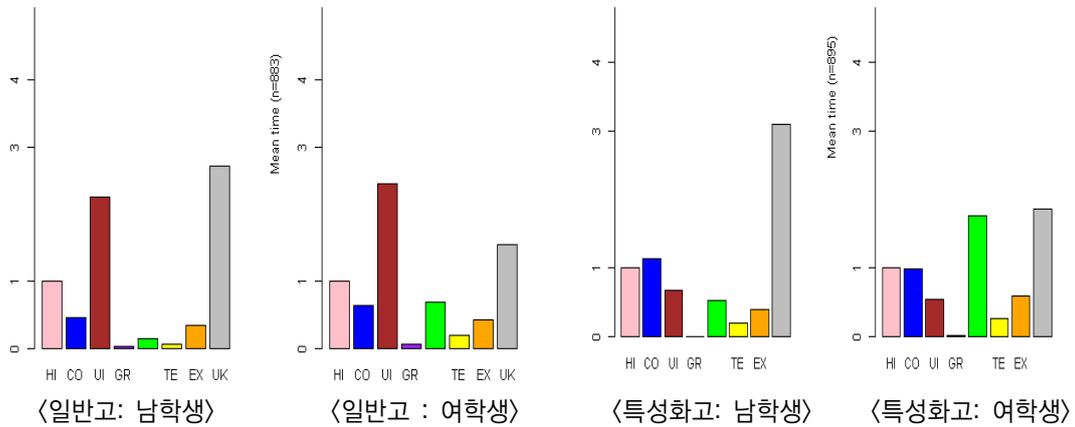
〈표 6〉 일반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력패턴 빈도

일반고			특성화고 출신		
HI/1-UI/1-UK/2-UI/3	153	7.6%	HI/1-UK/6	179	8.9%
HI/1-UK/6	120	6.0%	HI/1-CO/1-UK/5	81	4.0%
HI/1-UI/2-UK/2-UI/2	103	5.1%	HI/1-UI/1-UK/2-UI/3	52	2.6%
HI/1-UI/1-UK/5	70	3.5%	HI/1-UI/1-UK/5	46	2.3%
HI/1-UI/6	66	3.3%	HI/1-CO/1-UK/2-CO/3	40	2.0%
HI/1-UI/2-UK/4	59	2.9%	HI/1-PE/1-UK/5	39	1.9%
HI/1-UI/4-PE/2	47	2.4%	HI/1-CO/2-UK/4	38	1.9%
HI/1-EX/1-UI/1-UK/2-UI/2	39	1.9%	HI/1-CO/1-UK/2-CO/2-PE/1	34	1.7%
HI/1-UI/2-UK/1-UI/3	38	1.9%	HI/1-EX/1-UK/5	32	1.6%
HI/1-UI/1-UK/3-UI/2	33	1.6%	HI/1-CO/2-PE/4	30	1.5%



〔그림 4〕 일반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력패턴 분포

〔그림 5〕과 <표 7>은 일반고 및 특성화고의 평균 경력 유지 연한을 성별에 따라 비교한 결과이다. 먼저 일반고의 경우 여학생이 전문대와 정규직에 머무른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학생은 군입대 등으로 인하여 미상의 상태인 시간이 길다. 특성화고의 경우는 남녀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우선 여학생은 정규직에 머무른 시간이 훨씬 길게 나타났으나, 남학생은 미상, 전문대학, 대학의 상태에 머무른 시간이 여학생에 비해 길었다.



[그림 5] 일반고 및 특성화고의 평균 경력 유지 연한: 성별 비교

<표 7> 일반고 및 특성화고의 평균 경력 유지 연한: 성별 비교

구분	일반고		특성화고 출신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HI: Highschool)	1.000	1.000	1.000	1.000
CO: College)	0.450	0.642	1.130	0.981
UI: University	2.260	2.458	0.670	0.542
GR: Graduates	0.018	0.051	0.000	0.004
PE: Permanent	0.148	0.684	0.520	1.765
TE: Temporary)	0.060	0.195	0.190	0,255
EX: Exploring	0.343	0.429	0.400	0.588
UK: Unknown	2.722	1.541	3.100	1.866

나. 전환 비율(transition rate)

<표 8>은 각 상태에서 상태로 유지되거나 전환되는 비율을 측정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주목할 만한 지표에 국한해 보면, 특성화고가 일반고에 비해 “고교->미상”, “전문대->미상”, “대학->미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에서의 남학생 비율이 거의 유사함을 고려했을 때, 군입대 이외의 경력단절 상태가 특성화고 졸업자에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정규직->미상”의 비율로 특성화고 졸업자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빈도가 높은 패턴(고교졸업-정규직(1년)-미상(5년)“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특성화고 졸업자에게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점은 ”고교->정규직“, ”구직중->정규직“의 전환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 특성화고 졸업후 정규직에 진입, 유지하는 여학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후자의 경우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나, 일반고 졸업자의 경우 아직 교육경력이 끝나지 않은 학생이 훨씬 많은 점, 교육경력과 노동시장 진입 사이의 공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표 8〉 상태별 전환 비율

	HI→	CO→	UI→	GR→	PE→	TE→	EX→	UK→
HI→	0	0.17(0.37)	0.52(0.16)	0.00(0.00)	0.02(0.17)	0.01(0.04)	0.16(0.09)	0.12(0.17)
CO→	0	0.49(0.45)	0.02(0.01)	0.00(0.00)	0.14(0.15)	0.05(0.03)	0.06(0.06)	0.24(0.30)
UI→	0	0.00(0.01)	0.66(0.61)	0.01(0.00)	0.04(0.04)	0.02(0.01)	0.02(0.04)	0.25(0.28)
GR→	0	0.00(0.00)	0.06(0.00)	0.89(0.00)	0.00(0.00)	0.00(0.00)	0.00(0.00)	0.06(1.00)
PE→	0	0.03(0.06)	0.03(0.01)	0.01(0.00)	0.59(0.58)	0.04(0.05)	0.12(0.10)	0.17(0.20)
TE→	0	0.04(0.06)	0.09(0.03)	0.01(0.00)	0.33(0.31)	0.18(0.15)	0.13(0.17)	0.22(0.29)
EX→	0	0.09(0.07)	0.35(0.02)	0.00(0.00)	0.08(0.23)	0.04(0.10)	0.21(0.34)	0.22(0.25)
UK→	0	0.04(0.08)	0.20(0.05)	0.00(0.00)	0.02(0.05)	0.01(0.02)	0.02(0.03)	0.72(0.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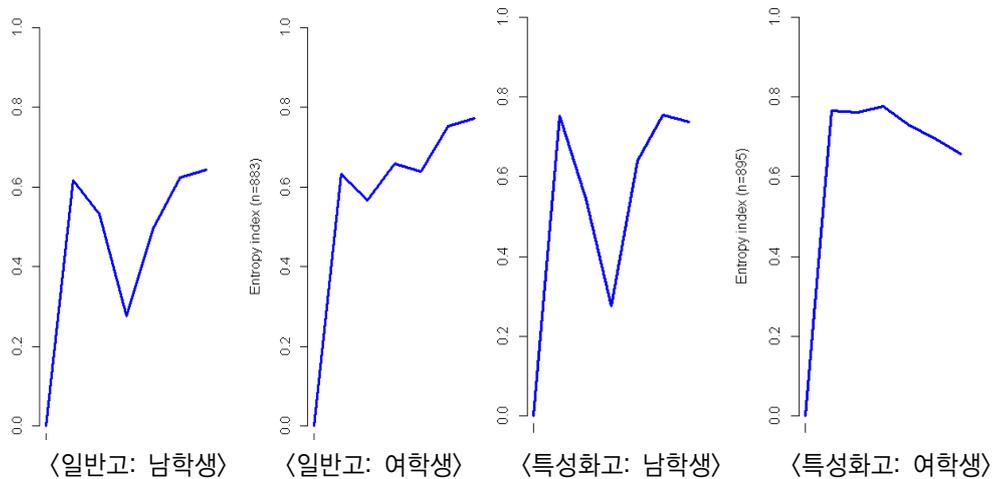
주: 괄호 안은 특성화고 집단의 값임

다. 엔트로피(entropy)

경력패턴에서의 엔트로피는 표본 안에서의 상태의 다양성(diversity)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표 9>, [그림 6]은 일반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의 7년간의 경력에서 엔트로피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엔트로피의 경우 계열에 따른 차이보다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우선 남학생의 경우 측정시점의 2~4년 사이에 미상의 상태로 균질해짐에 따라 엔트로피가 대폭 감소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 이는 군입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 계속해서 높은 엔트로피를 가진 상태, 즉 개인별로 서로 다른 경력 상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여학생의 고교 계열간 차이이다. 특히 20대 중반시기부터 특성화고 졸업 여학생의 경력의 동질성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일반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의 엔트로피 변화 양상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일반고	0.00	0.63	0.59	0.53	0.59	0.71	0.74
특성화고	0.00	0.77	0.69	0.59	0.71	0.76	0.72



[그림 6] 일반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의 엔트로피 변화 양상 : 성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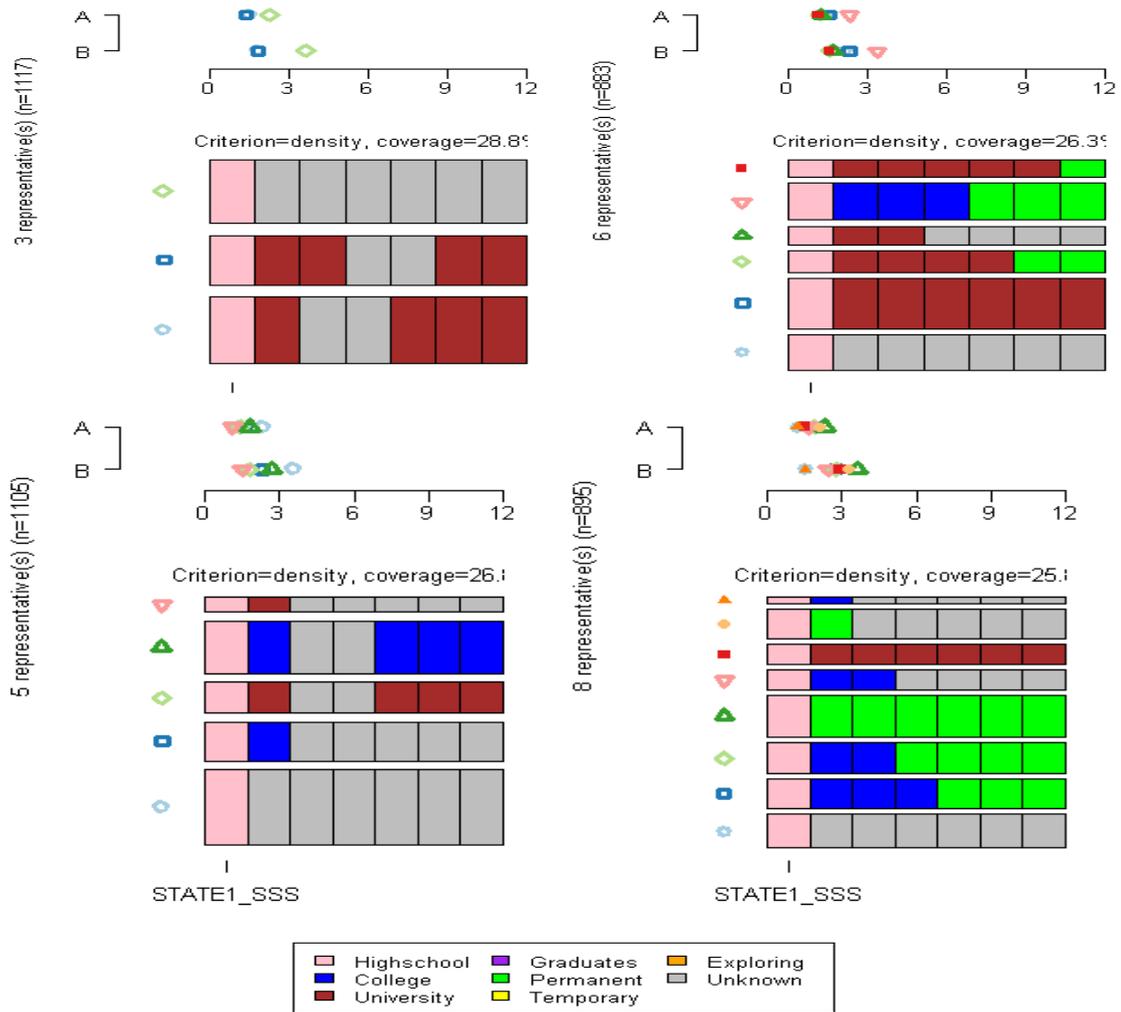
2. 일반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의 청년기 경력패턴 유형화

가. 대표 경력패턴(representative sequence)

수많은 경력패턴 가운데 대표적인 패턴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가장 전형적인(typical)인 시퀀스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장 빈번한 시퀀스를 선택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가장 중앙(central)의 시퀀스를 확인하는 방법(medoid⁵⁾)이다. 이때 중앙에 있다는 의미는 수학적으로 모든 다른 시퀀스들과의 거리값(dissimilarity)의 최소 평균값을 갖는 시퀀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7]은 일반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의 대표 경력패턴을 나타낸다. 이때 바(bar)의 두께는 해당 패턴에 연관된 시퀀스의 숫자를 의미한다. 먼저 일반고 남학생의 경우 크게 3개의 대표 경력패턴이 나타나는데, 하위의 두 개는 4년제 대학 입학후 2년간의 군입대로 인한 교육경력 단절이 나타난 형태를 보인다. 반면 일반고 여학생의 경우 총 6개의 대표 경력패턴이 나타났는데, 남학생에 비해 교육경력이 단절된 형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력패턴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들 3개, 6개의 대표 패턴은 일반고 남학생 및 여학생의 경력패턴의 28.8%, 26.3%를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medoid: A mathematically representative object in a set of objects; it has the smallest average dissimilarity to all other objects in the set



[그림 7] 일반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의 대표 경력패턴

주: 1)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일반고(남학생), 일반고(여학생), 특성화고(여학생), 특성화고(남학생)
 2) A: discrepancy(mean dist. to center), B: Mean dist. to representative seq.

다음으로 특성화고 남학생의 경우 일반계고 남학생에 비해 좀 더 다양한 대표 경력패턴이 나타났다. 총 5개의 경력패턴 가운데 3개가 고교 졸업 후 계속 미상의 상태이거나, 대학/전문대학 1년 재학 후 계속 미상인 상태의 양상의 띄었다. 나머지 2개의 경력패턴은 일반계고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대학/전문대학 재학 중 군입대로 인한 교육경력 단절이 나타났다. 한편 특성화고 여학생의 경우 정규직에 머무른 시간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 많이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후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정규직으로 이동하여 이를 유지하는 패턴이 전체 8개 중 3개를 차지하였다. 한편,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전문대학에 입학하거나 정규직으로 이동한 후 1~2년 만에 미상의 상태로 전환된 경력패턴도 4개에 해당되었다. 이들 5개, 8개의 대표 패턴은 일반계고 남학생 및 여학생의 경력패턴의 26.2%, 25.3%를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일반계고에 비해 포괄성의 정도가 약간 낮게 나타났다.

나. 경력패턴 유형화 (clust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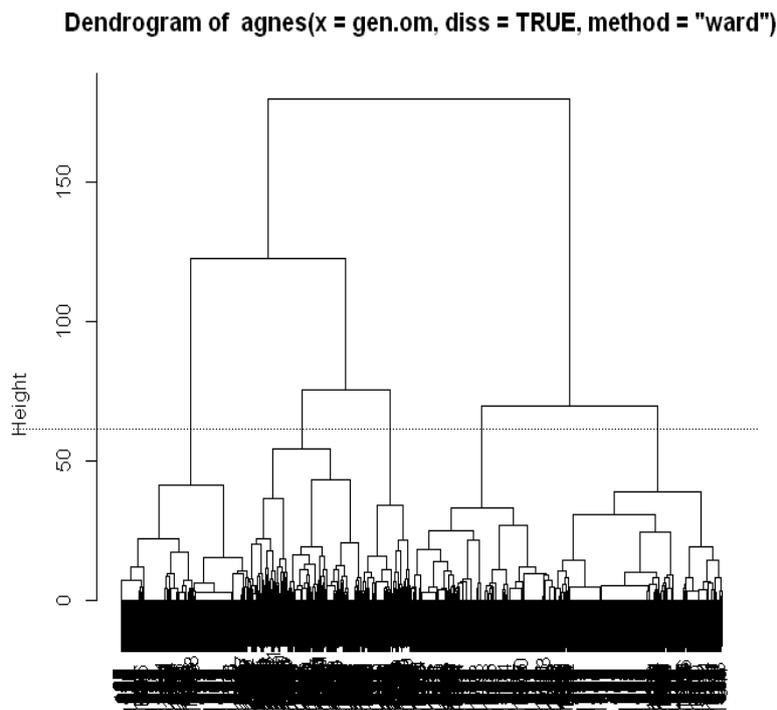
1) 일반계고

일반계고 졸업자의 경력패턴의 배열간 거리값을 기초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 가능한 군집들 모두에 대해서 군집을 구성하는 대상들 간의 측정치 분산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는 쌍을 군집화하는 ward method를 활용하였다. 먼저 [그림 8]은 군집분석 결과 나타난 덴드로그램을 나타내는데, 크게 2개, 3개, 5개의 군집이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CCC값과 Pseudo Hotelling T이 5개 군집에서 크게 감소 및 증가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계고 졸업자의 경력패턴은 크게 5개의 유형으로 군집화 된다고 판단하였다.

<표 10>은 일반고 졸업자의 군집분석 결과 5개의 유형으로 구분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20~25%정도의 경력패턴을 포괄하고 있으며, Cluster 5만 8.2%로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표 10> 일반고 졸업자의 경력패턴 군집분석 결과

구분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Cluster 4	Cluster 5	소계
사례수	424	481	554	377	164	2,000
비율	21.2%	24.1%	27.7%	18.9%	8.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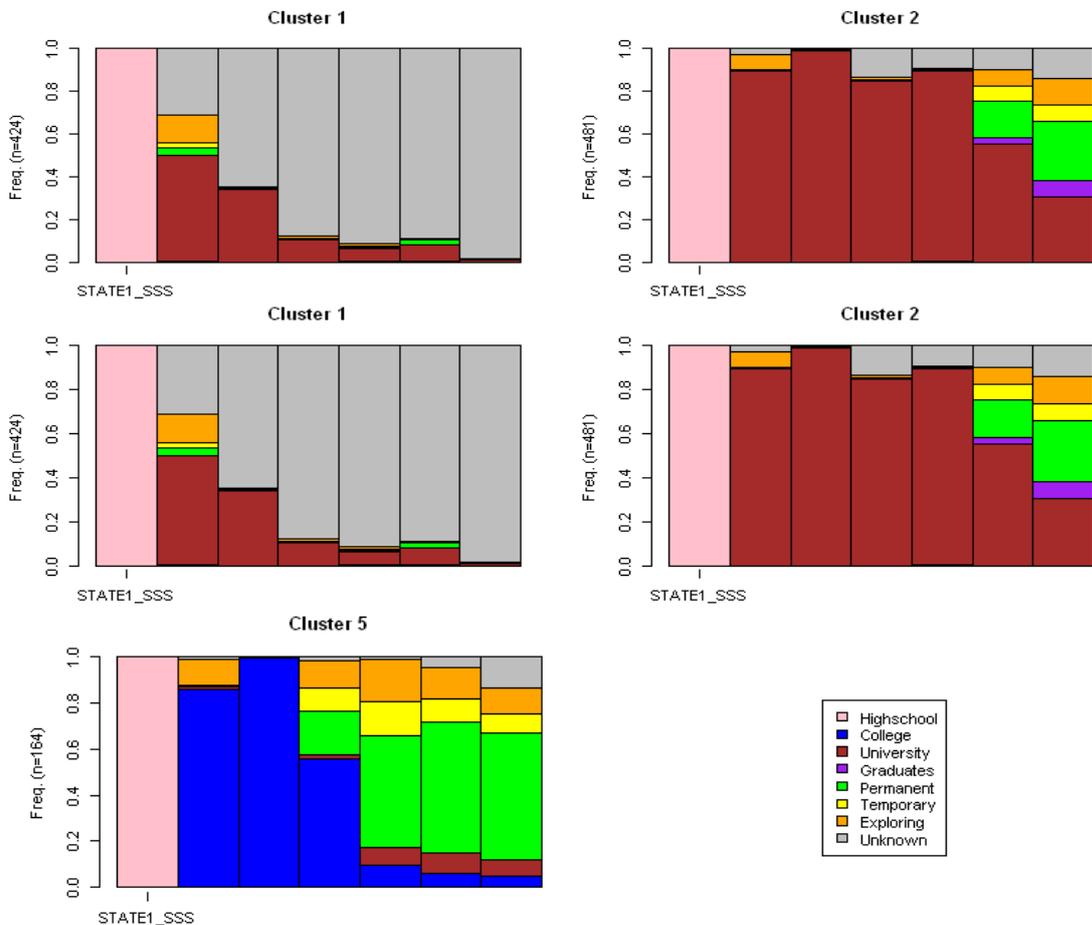
[그림 8] 일반계고 경력패턴 유형화를 위한 덴드로그램

[그림 9], [그림 10]은 경력패턴 유형별 타임 프로파일과 대표 시퀀스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각 유형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유형의 명칭을 설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luster 1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한 후, 시간이 지날수록 미상의 상태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이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후 바로 미상의 상태로 넘어가는 비율도 30% 가량 차지하였다. 대표 시퀀스를 확인한 결과도 이들 두 시퀀스가 전체의 4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luster 1은 “고졸후 떠돌이형”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Cluster 2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한 후, 4~5년간의 중단없는 교육경력을 유지하거나, 이후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대표 시퀀스를 확인한 결과도 대학 재학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졸업 후 정규직으로 취업한 시퀀스가 전체의 3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luster 2는 “대졸 후 취업형(대학재학형)”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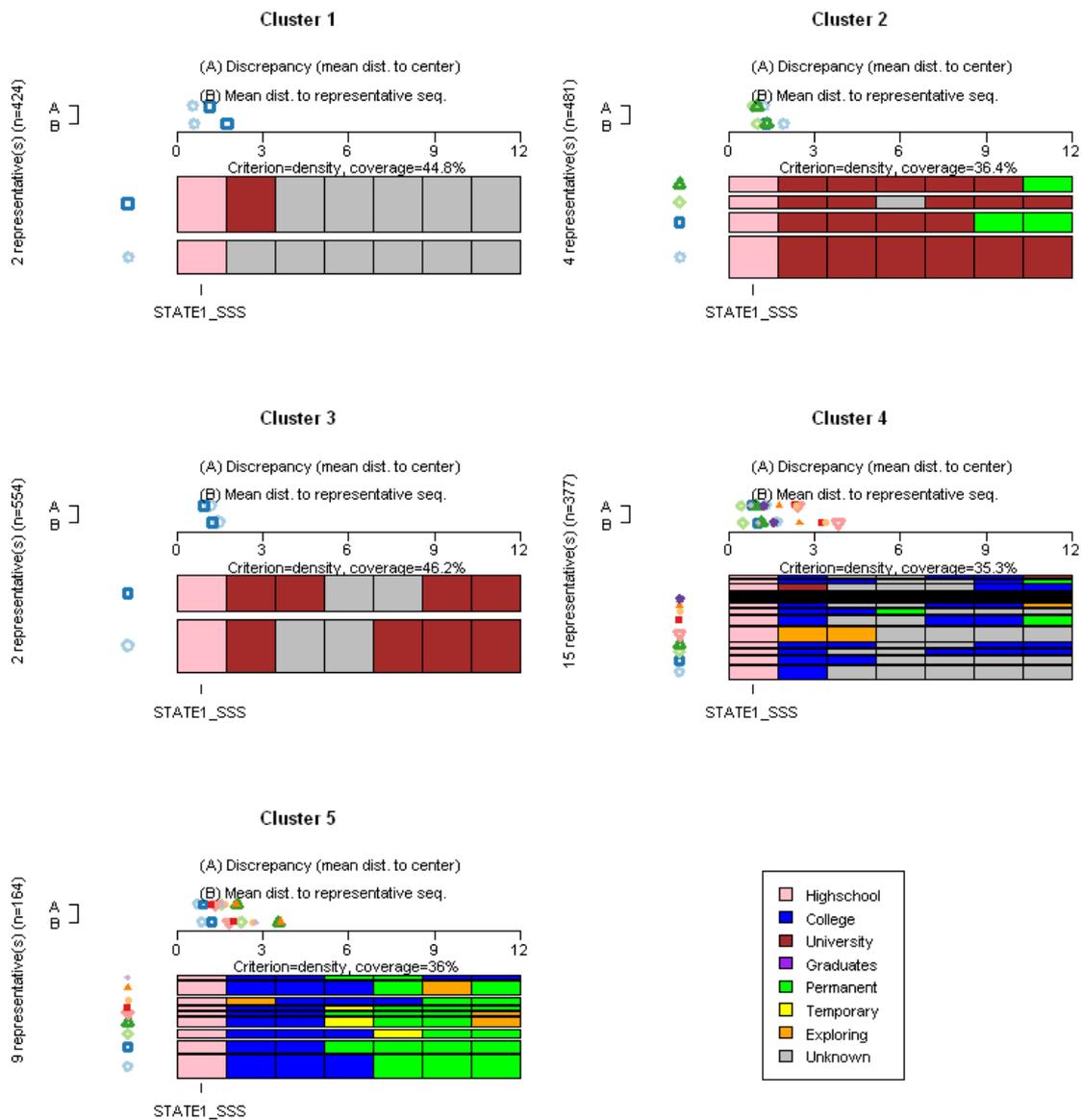
셋째, Cluster 3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여 1~3년간의 교육경력을 유지하였으나, 군입대로 예측되는 2년간의 미상의 상태를 거친 후 다시 대학으로 복귀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대표 시퀀스를 확인한 결과도 2개의 대표 시퀀스가 4년제 대학 중 2년의 교육경력 공백이 나타나는 특징을 가졌으며, 이것이 전체의 4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luster 3는 “병역 후 대학복귀형”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9] 일반계고 졸업자 경력패턴 유형별 타임 프로파일(time profile)

Cluster 4는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시퀀스들이 복합된 양상을 띠었다. 주요한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에 진학하였으나, 졸업 후 미상의 상태로 남겨지거나, 전문대학 재학연한이 길고 중간 단절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등의 특징을 가졌다. 대표 시퀀스 도 총 12개가 나타나는 등 내부의 복잡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Cluster 4는 “전문대 진학 후 떠돌이형”으로 명명하였다.

Cluster 5는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에 진학하여 2~3년간 재학한 후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특징을 보였다. 대표 시퀀스 역시 전문대학 졸업후 정규직으로의 전환의 양상을 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것이 전체의 3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luster 5는 “전문대 졸업 후 취업형”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10] 일반고 졸업자 경력패턴 유형별 대표 시퀀스

〈표 11〉 일반고 졸업자 경력패턴 유형(종합)

유형명	사례수	비율	특징	주요 현황
Cluster 1. 고졸후 떠돌이형	424	21.2%	고등학교 졸업 후 대부분 미상의 상태로 전환	-성별: 남(58.7%), 여(41.3%) -자아관: 3.69 -임금근로자 비율: 1.2%(정규직 20%) -평균임금: 97만원, 근무시간: 34.8시간, 직장만족도: 3.60
Cluster 2. 대졸후 취업형	481	24.1%	대학에 진학한 후, 4~5년간의 중단없는 교육경력을 유지하거나, 이후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특징	-성별: 남(23.1%), 여(76.9%) -자아관: 3.69 -임금근로자 비율: 42.0%(정규직 61.9%) -평균임금: 133만원, 근무시간: 41.5시간, 직장만족도: 3.33
Cluster 3. 병역후 대학복귀형	554	27.7%	대학에 진학하여 1~3년간의 교육경력을 유지하였으나, 군입대로 예측되는 2년간의 미상의 상태를 거친 후 다시 대학으로 복귀하는 특징	-성별: 남(88.1%), 여(11.9%) -자아관: 3.75 -임금근로자 비율: 17.9%(정규직 30.3%) -평균임금: 89만원, 근무시간: 35.6시간, 직장만족도: 3.48
Cluster 4. 전문대 진학후 떠돌이형	377	18.9%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에 진학하였으나, 졸업 후 미상의 상태로 남겨지거나, 전문대학 재학연한이 길고 중간 단절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등의 특징	-성별: 남(69.0%), 여(31.0%) -자아관: 3.64 -임금근로자 비율: 27.6%(정규직 68.3%) -평균임금: 128.7만원, 근무시간: 44.0시간, 직장만족도: 3.35
Cluster 5. 전문대 졸업후 취업형	164	8.2%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에 진학하여 2~3년간 재학한 후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특징	-성별: 남(58.7%), 여(41.3%) -자아관: 3.60 -임금근로자 비율: 68.3%(정규직 81.3%) -평균임금: 134.3만원, 근무시간: 45.5시간, 직장만족도: 3.31

〈표 12〉 일반고 졸업자 경력패턴 유형별 관련 변인 현황(1)

구분	고졸후 떠돌이형		대졸후 취업형		병역후 대학복귀형		전문대진학후 떠돌이형		전문대졸업후 취업형		
	사례	평균	사례	평균	사례	평균	사례	평균	사례	평균	
임금 근로자 (2010년)	일주일 총 정규근무 시간	4	34.75	197	41.51	94	35.55	96	43.97	109	45.45
	월평균 임금(만원)	5	97.00	184	132.52	80	89.01	83	128.67	101	134.24
	일과 전공 일치도	5	2.20	202	3.29	99	2.73	103	3.35	112	3.38
	일과 기술, 능력 수준	5	4.00	202	3.06	99	3.40	104	2.99	112	3.04
	일과 교육 수준	5	4.00	202	3.14	98	3.52	104	3.13	112	3.04
	업무 만족도	5	3.60	202	3.30	98	3.43	104	3.34	112	3.34
	직장만족도-근무환경	5	3.00	202	3.39	99	3.53	104	3.38	112	3.55
	직장만족도-근무시간	5	3.40	202	3.40	99	3.56	104	3.27	112	3.24
	직장만족도-의사소통/인간관계	5	3.40	202	3.56	99	3.85	104	3.69	112	3.54
	직장만족도-임금	5	2.80	202	2.98	99	3.34	104	3.20	112	3.09
	직장만족도-개인의 발전 가능성	5	2.80	202	3.07	99	3.10	104	3.28	112	3.05
	직장만족도-복지후생	5	3.00	202	2.95	98	3.00	104	2.99	112	3.05
	직장만족도-안정성	5	3.40	202	3.27	97	3.09	104	3.35	112	3.46
	전반적인 직장 만족도	5	3.60	202	3.33	99	3.48	104	3.35	112	3.31
	평생직장으로 생각	5	1.80	202	1.85	99	1.86	103	1.79	112	1.85
구직활동 여부	5	2.00	201	1.76	98	1.74	103	1.81	112	1.82	
자아관 (2010년)	1(적성인지)	7	3.57	413	3.59	531	3.67	234	3.56	142	3.51
	2(흥미인지)	7	4.00	413	3.79	531	3.78	234	3.70	142	3.78
	3(가치관정립)	7	4.00	413	3.84	531	3.89	234	3.73	142	3.83
	4(결정력)	7	3.57	413	3.54	531	3.64	234	3.53	142	3.36
	5(계획추진력)	7	3.00	413	3.57	531	3.60	234	3.54	142	3.41
	6(자존감)	7	4.00	413	3.79	531	3.90	234	3.79	142	3.73
행복여부	7	1.14	413	1.18	531	1.13	234	1.24	142	1.14	

〈표 13〉 일반고 졸업자 경력패턴 유형별 관련 변인 현황(2)

구분		고졸후 떠돌이형		대졸후 취업형		병역후 대학복귀형		전문대진학후 떠돌이형		전문대졸업후 취업형	
		사례	평균	사례	평균	사례	평균	사례	평균	사례	평균
성별	남	249	58.7	111	23.1	488	88.1	260	69.0	9	5.5
	여	175	41.3	370	76.9	66	11.9	117	31.0	155	94.5
	합계	424	100.0	481	100.0	554	100.0	377	100.0	164	100.0
일반고 진학이유 (2004년)	대학 진학에 유리	296	69.8	376	78.2	427	77.1	243	64.5	125	76.2
	부모님의 권유로	46	10.8	30	6.2	52	9.4	53	14.1	14	8.5
	선생님의 권유로	10	2.4	11	2.3	10	1.8	14	3.7	6	3.7
	특별한 이유 없음	51	12.0	59	12.3	52	9.4	54	14.3	17	10.4
	기타	21	5.0	5	1.0	13	2.3	13	3.4	2	1.2
	합계	424	100.0	481	100.0	554	100.0	377	100.0	164	100.0
(임금근로자) 구직경로 (2010년)	공개채용(취직시험)			87	43.1	23	23.5	27	26.0	41	36.6
	소개나 추천	2	40.0	57	28.2	37	37.8	50	48.1	36	32.1
	스카우트			4	2.0	5	5.1	6	5.8	3	2.7
	직접 직장에 찾아가서	3	60.0	32	15.8	21	21.4	12	11.5	24	21.4
	기타			22	10.9	12	12.2	9	8.7	8	7.1
	합계	5	100.0	202	100.0	98	100.0	104	100.0	112	100.0
(임금근로자) 근무형태 (2010년)	정규직	1	20.0	125	61.9	30	30.3	71	68.3	91	81.3
	비정규직	4	80.0	77	38.1	69	69.7	33	31.7	21	18.8
	합계	5	100.0	202	100.0	99	100.0	104	100.0	11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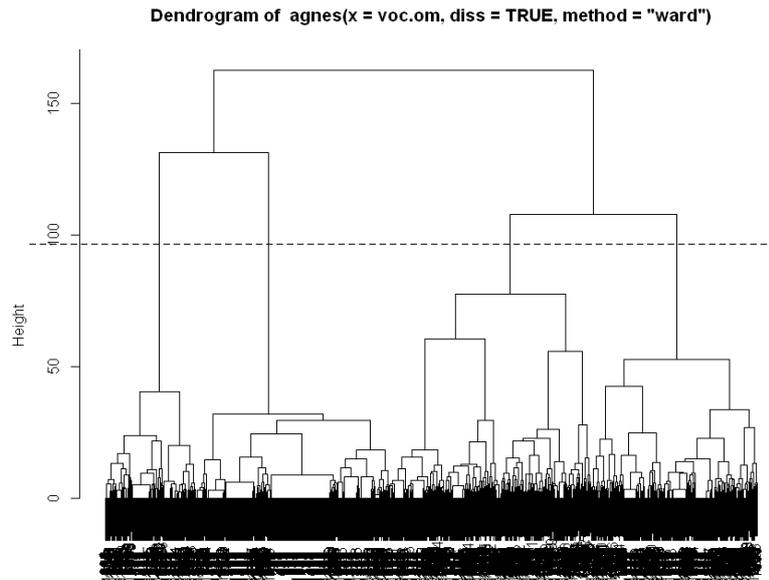
2) 특성화고

특성화고 역시 일반고 졸업자와 동일하게 경력패턴의 배열간 거리값을 기초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ward method를 활용한 결과 [그림 11]은 군집분석 결과 나타난 덴드로그램을 나타내는데, 크게 2개, 4개의 군집이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CCC값과 Pseudo Hotelling T이 4개 군집에서 크게 감소 및 증가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특성고 졸업자의 경력패턴은 크게 4개의 유형으로 군집화 된다고 판단하였다.

〈표 14〉는 특성화고 졸업자의 군집분석 결과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Cluster 3에 해당되는 사례가 621개(21.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Cluster 2(29.6%), Cluster 4(25.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력패턴 군집분석 결과

구분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Cluster 4	소계
사례수	279	591	621	509	2,000
비율	14.0%	29.6%	31.1%	25.5%	100.0%



[그림 11] 특성화고 경력패턴 유형화를 위한 덴드로그램

[그림 12], [그림 13]은 특성화고 졸업자 경력패턴 유형별 타임 프로파일과 대표 시퀀스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각 유형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유형의 명칭을 설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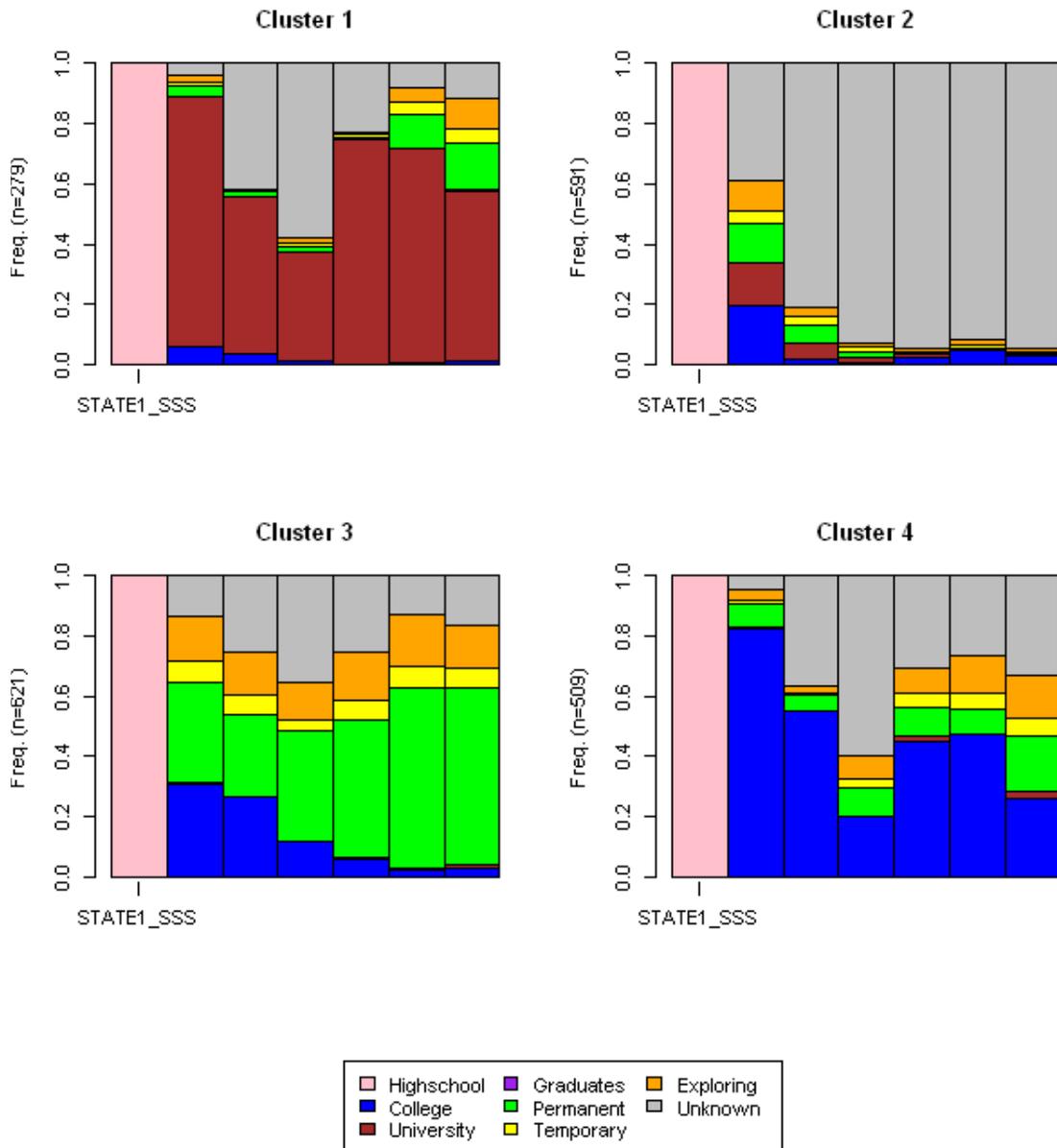
첫째, Cluster 1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한 후 교육경력을 계속 유지하거나, 2년 정도의 공백이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은 특성화고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한 남학생과 여학생이 혼재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대표 시퀀스를 확인한 결과도 이들 대학 재학이 지속되는 시퀀스와 중간에 2~3년의 공백이 있는 시퀀스들이 전체의 3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luster 1은 “대학재학형”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Cluster 2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전문대학, 정규직 등 다양한 진입 경로를 갖고 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상의 상태로 이동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대표 시퀀스를 확인한 결과도 고교 졸업 후 계속 미상의 상태이거나, 1년간의 전문대학 재학 후 미상의 상태인 2개의 시퀀스가 전체의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luster 2는 “고졸 후 떠돌이형”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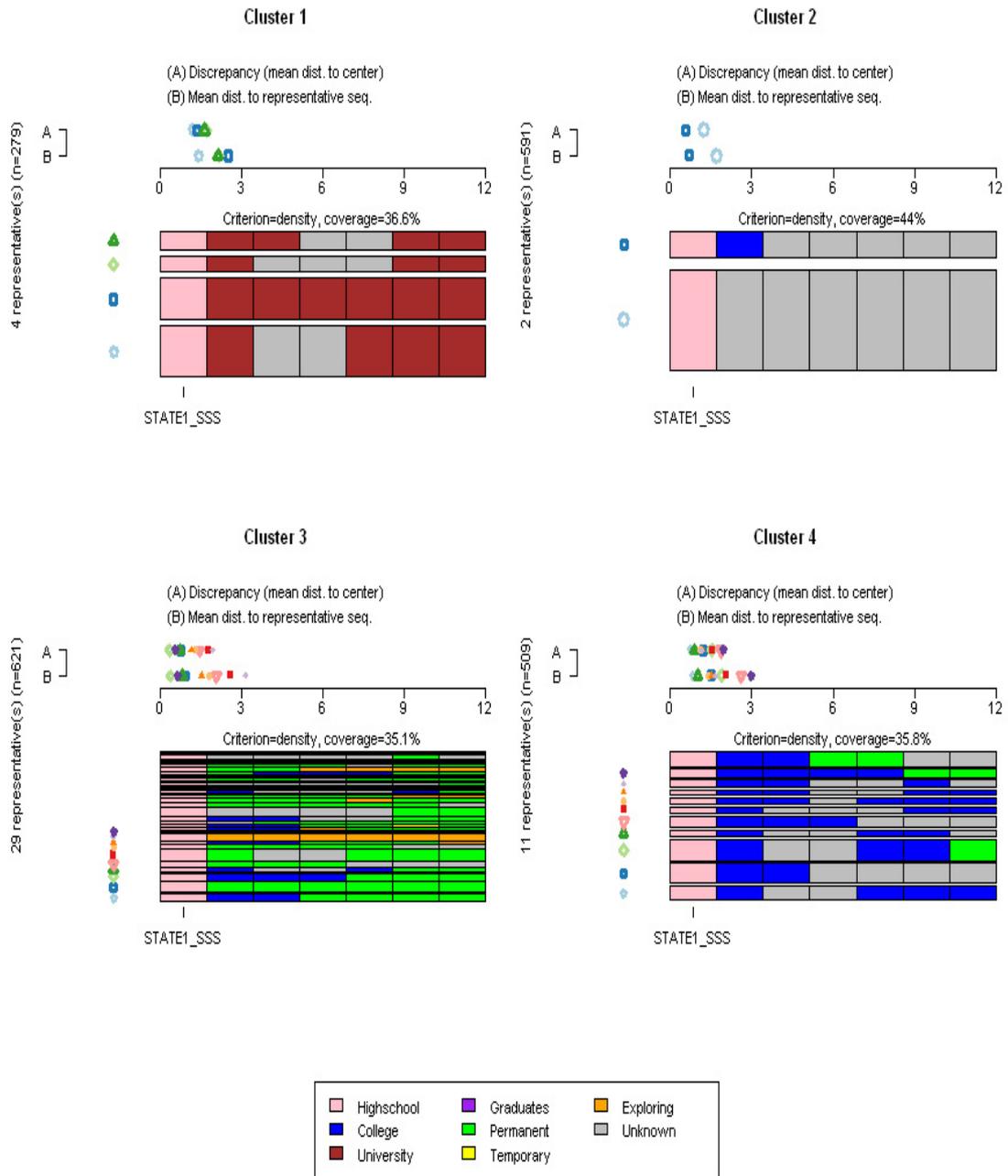
셋째, Cluster 3의 주요한 특징은 정규직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는 점이다. 일부는 전문대학 졸업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일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노동시장으로 이행한 경우가

많았다. 대표 시퀀스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주로 전문대학과 정규직이 혼재된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Cluster 3는 “고졸 후 취업형”으로 명명하였다.

넷째, Cluster 4의 주요한 특징은 전문대학 재학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는 점이다. 전문대학의 일반적인 교육연한이 2년임을 감안했을 때, 군대, 학교전환 등의 이유로 전문대학의 재학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 시퀀스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주로 전문대학과 미상의 상태가 혼재된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Cluster 4는 “전문대학 및 미상 혼합형”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12] 특성화고 졸업자 경력패턴 유형별 타임 프로파일(time profile)



[그림 13] 특성화고 졸업자 경력패턴 유형별 대표 시퀀스

〈표 15〉 특성화고 졸업자 경력패턴 유형(종합)

유형명	사례수	비율	특징	주요 현황
Cluster 1. 대학재학형	279	14.0%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한 후 교육경력을 계속 유지하거나, 2년 정도의 공백이 있음(특성화고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한 남학생과 여학생이 혼재)	-성별: 남(64.9%), 여(35.1%) -자아관: 3.60 -임금근로자 비율: 35.1%(정규직 51.0%) -평균임금: 123만원, 근무시간: 42.9시간, 직장만족도: 3.33
Cluster 2. 고졸후 떠돌이형	591	29.5%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전문대학, 정규직 등 다양한 진입 경로를 갖고 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상의 상태로 이동	-성별: 남(65.0%), 여(35.0%) -자아관: 3.68 -임금근로자 비율: 2.4%(정규직 57.1%) -평균임금: 131만원, 근무시간: 50.9시간, 직장만족도: 3.36
Cluster 3. 고졸후 취업형	621	31.1%	일부는 전문대학 졸업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일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노동시장으로 이행(주로 전문대학과 정규직이 혼재된 형태가 다수)	-성별: 남(34.9%), 여(65.1%) -자아관: 3.54 -임금근로자 비율: 65.1%(정규직 81.4%) -평균임금: 134만원, 근무시간: 47.8시간, 직장만족도: 3.36
Cluster 4. 전문대 및 미상 혼합형	509	25.0%	전문대학 재학에 머무는 시간이 김(군대, 학교전환 등의 이유로 전문대학의 재학을 유지, 주로 전문대학과 미상의 상태가 혼재된 형태)	-성별: 남(63.5%), 여(36.5%) -자아관: 3.58 -임금근로자 비율: 35.4%(정규직 67.2%) -평균임금: 127.4만원, 근무시간: 46.2시간, 직장만족도: 3.24

〈표 16〉 특성화고 졸업자 경력패턴 유형별 관련 변인 현황(1)

구분	대학재학형		고졸후 떠돌이형		고졸후 취업형		전문대 및 미상 혼합형		
	사례	평균	사례	평균	사례	평균	사례	평균	
임금근로자	일주일 총 정규근무 시간	96	42.91	12	50.92	397	47.89	164	46.20
	월평균 임금(만원)	91	122.85	11	131.09	358	134.32	149	127.44
	일과 전공 일치도	98	2.71	14	2.57	404	3.25	183	3.15
	일과 기술, 능력 수준	95	3.20	14	3.21	403	3.01	181	2.99
	일과 교육 수준	96	3.15	13	3.15	403	2.98	180	3.01
	업무 만족도	97	3.33	13	3.46	404	3.28	182	3.34
	직장만족도-근무환경	97	3.39	14	3.57	404	3.43	181	3.42
	직장만족도-근무시간	97	3.35	14	3.21	404	3.27	181	3.20
	직장만족도-의사소통/인간관계	97	3.42	14	3.57	404	3.62	181	3.58
	직장만족도-임금	97	3.07	14	2.86	403	3.24	181	3.08
	직장만족도-개인의 발전 가능성	97	3.08	14	2.86	404	3.21	181	3.24

(표계속)

(표계속)

구분		대학재학형		고졸후 떠돌이형		고졸후 취업형		전문대 및 미상 혼합형	
		사례	평균	사례	평균	사례	평균	사례	평균
임금 근로자	직장만족도-복지후생	97	2.92	14	3.07	403	3.14	181	3.06
	직장만족도-안정성	97	3.13	14	2.93	404	3.47	182	3.35
	전반적인 직장 만족도	97	3.33	14	3.36	404	3.36	183	3.24
	평생직장으로 생각	97	1.87	14	1.86	403	1.76	183	1.81
	구직활동 여부	98	1.68	14	1.57	403	1.81	183	1.75
자아관	1(적성인지)	247	3.49	33	3.52	520	3.47	340	3.50
	2(흥미인지)	247	3.64	33	3.79	520	3.59	340	3.64
	3(가치관정립)	247	3.66	33	3.91	520	3.67	340	3.71
	4(결정력)	247	3.53	33	3.70	520	3.47	340	3.49
	5(계획추진력)	247	3.51	33	3.42	520	3.40	340	3.46
	6(자존감)	247	3.74	33	3.76	520	3.64	341	3.69
행복여부		247	1.21	33	1.21	521	1.20	341	1.23

〈표 17〉 특성화고 졸업자 경력패턴 유형별 관련 변인 현황(2)

구분		대학재학형		고졸후 떠돌이형		고졸후 취업형		전문대 및 미상 혼합형	
		사례	평균	사례	평균	사례	평균	사례	평균
성별	남	181	64.9	384	65.0	217	34.9	323	63.5
	여	98	35.1	207	35.0	404	65.1	186	36.5
	합계	279	100.0	591	100.0	621	100.0	509	100.0
특성화고 진학이유 (2004년)	진학보다 취업을 선호	14	5.0	124	21.0	159	25.6	47	9.2
	내가 원하던 분야이므로	46	16.5	69	11.7	83	13.4	72	14.1
	가정 형편 때문에	4	1.4	24	4.1	16	2.6	6	1.2
	성적 때문에	129	46.2	222	37.6	246	39.6	257	50.5
	대학 진학에 유리	62	22.2	106	17.9	69	11.1	103	20.2
	부모님의 권유로	8	2.9	13	2.2	17	2.7	12	2.4
	선생님의 권유로	16	5.7	32	5.4	31	5.0	12	2.4
	합계	279	100.0	591	100.0	621	100.0	509	100.0
(임금근로자) 구직경로	공개채용(취직시험)	21	21.4	1	7.1	127	31.4	47	25.5
	소개나 추천	42	42.9	8	57.1	147	36.4	67	36.4
	스카우트	4	4.1			15	3.7	10	5.4
	직접 직장에 찾아가서	20	20.4	3	21.4	91	22.5	38	20.7
	기타	11	11.2	2	14.3	24	5.9	22	12.0
	합계	98	100.0	14	100.0	404	100.0	184	100.0
(임금근로자) 근무형태	정규직	50	51.0	8	57.1	329	81.4	121	67.2
	비정규직	48	49.0	6	42.9	75	18.6	59	32.8
	합계	98	100.0	14	100.0	404	100.0	180	100.0

3. 일반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력패턴 유형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일반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력패턴 유형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항로짓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의 <표 18>, <표 19>와 같다.

<표 18> 일반고 졸업자 경력패턴 유형과 관련변인과의 다항로짓분석 결과

구분		1 vs 5		2 vs 5		3 vs 5		4 vs 5	
		β	Exp(β)						
일반특성	성별	3.296***	27.003	1.725***	5.610	4.967***	143.606	3.666***	39.082
학교 만족	고교재선택	.139	1.149	.323	1.381	.540*	1.716	-.214	.807
	학교만족도	-.147	.863	-.230	.795	-.278	.757	-.101	.904
가정특성	가정생활만족도	-.246	.782	-.144	.866	-.099	.906	-.220	.802
	정상가정	.232	1.261	.549	1.732	1.020**	2.774	.120	1.127
학업성취도	국어	.095	1.100	-.011	.989	.031	1.031	.034	1.034
	영어	.117	1.124	.219	1.245	.203	1.225	-.019	.981
	수학	.485***	1.625	.353**	1.423	.574***	1.775	.265	1.304
진로계획 및 경험	직업결정여부	-.592*	.553	-.296	.743	-.496	.609	-.459	.632
	교육포부	.740***	2.095	.976***	2.655	.792***	2.208	.090	1.094
	재학중근로	-.320	.726	-.202	.817	-.466	.627	.058	1.060
	적성인지여부	-.110	.896	-.193	.825	-.070	.933	-.031	.970
나에 대한 인식	1(공부)	.289	1.336	.590***	1.804	.425*	1.530	.199	1.220
	2(재주)	-.065	.937	-.165	.848	-.131	.877	.008	1.008
	3(리더십)	-.299	.741	-.341*	.711	-.252	.777	-.363*	.696
	4(미래꿈)	.194	1.214	.215	1.240	.133	1.142	.265	1.304
	5(가정경제수준)	.397**	1.487	.072	1.074	.257	1.293	.084	1.088
	6(친구관계)	.199	1.220	.259	1.295	.349	1.417	.161	1.175
	7(학교성실)	-.398	.671	-.119	.887	-.469**	.626	-.234	.792
격려자 여부		.152	1.164	.004	1.004	.041	1.042	.188	1.207
자아관	1(적성인지)	.301	1.352	.220	1.246	.104	1.110	.279	1.321
	2(흥미인지)	-.095	.909	.062	1.064	-.047	.954	-.061	.941
	3(가치관정립)	.102	1.108	.077	1.080	.125	1.134	-.002	.998
	4(결정력)	.152	1.164	.029	1.030	.108	1.115	.157	1.170
	5(계획추진력)	.053	1.055	-.103	.902	-.119	.888	-.165	.848
	6(자존감)	-.060	.941	-.092	.912	-.003	.997	-.087	.917

〈표 19〉 특성화고 졸업자 경력패턴 유형과 관련변인과의 다항로지분석 결과

구분		1 vs 4		2 vs 4		3 vs 4	
		β	Exp(β)	β	Exp(β)	β	Exp(β)
일반특성	성별	.027	1.027	-.093	.911	-1.333***	.264
학교만족	고교재선택	-.250	.779	.022	1.023	.128	1.136
	학교만족도	-.137	.872	-.141	.868	.033	1.033
가정특성	가정생활만족도	.110	1.117	-.122	.885	-.149*	.862
	정상가정	.024	1.024	-.680***	.507	-.367**	.693
학업 성취도	국어	-.132	.877	.079	1.082	-.077	.926
	영어	-.137	.872	-.059	.942	-.072	.931
	수학	-.052	.949	-.029	.972	-.077	.926
	전공	.303***	1.353	.035	1.036	.072	1.074
	자격증 유무	.329	1.389	1.312**	3.714	.904*	2.471
	자격증개수	.007	1.007	-.200***	.819	-.131	.877
진로계획 및 경험	직업결정여부	.005	1.005	-.095	.910	-.066	.936
	교육포부	.897***	2.452	-.040	.961	-.343***	.709
	재학중근로	-.094	.911	-.022	.978	.236	1.267
	적성인지여부	.014	1.014	-.016	.984	-.047	.955
나에대한 인식	1(공부)	.075	1.078	-.143	.867	-.011	.989
	2(재주)	-.075	.928	.037	1.037	.159	1.172
	3(리더십)	-.001	.999	-.141	.869	-.190*	.827
	4(미래꿈)	.092	1.097	-.045	.956	.015	1.015
	5(가정경제수준)	.095	1.100	.217*	1.243	-.110	.896
	6(친구관계)	-.239	.787	-.011	.989	.142	1.152
	7(학교성실)	.125	1.133	.075	1.078	.013	1.013
격려자 여부		-.131	.877	-.131	.877	-.166	.847
자아관	1(적성인지)	.044	1.045	.081	1.085	.110	1.116
	2(흥미인지)	.050	1.051	-.035	.966	-.087	.917
	3(가치관정립)	-.208	.812	.037	1.038	-.026	.975
	4(결정력)	.118	1.125	.273**	1.314	.071	1.074
	5(계획추진력)	-.071	.931	.040	1.041	.040	1.041
	6(자존감)	.044	1.045	-.077	.926	.019	1.019

먼저 일반고 경력패턴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성별, 가정특성, 수학성적, 교육포부, 자신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변인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의 경우 모든 유형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을 끼쳤는데, 남학생일수록 “5.전문대 졸업 후 취업형”이 아닌 다른 4개 유형에 속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 고졸후 떠돌이형”의 경우 고교시절 수학성적이 높을수록(1.625배), 교육포부가 높을수록(2.095배), 가정경제수준이 높을수록(1.487배) 해당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졸후 취업형”의 경우도 고교시절 수학성적이 높을수록(1.423배), 교육포부가 높을수록(2.655배), 공부를 잘한다고 인식할수

록(1.804배) 해당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병역후 대학복귀형“은 ”2.대졸 후 취업형“과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고교시절 성실성에 대한 인식은 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4. 전문대 진학후 떠돌이형“의 경우 성별 이외에 고교시절 리더십 만이 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특성화고 경력패턴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성별, 가정특성, 전공 및 자격증, 교육포부, 리더십, 가정경제수준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의 경우 일반고에 비해 영향력이 약하게 나타났으며, 오직 ”3. 고졸 후 취업형“의 경우 여성일수록 3.78 배 가량 해당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1. 대학재학형“의 경우 고교시절 전공 성적이 높을수록(1.353배), 교육포부가 높을수록(2.452배) 해당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고졸 후 떠돌이형“의 경우는 분리가정일수록(1.97배), 자격증 개수가 적을수록(1.220배), 가정경제수준이 높을수록(1.243배), 결정력이 높을수록(1.314배) 해당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졸 후 취업형“의 경우 분리가정일수록(1.44배), 자격증을 갖고 있을수록(2.471배), 교육포부가 낮을수록(1.410배), 리더십이 없다고 인식할수록(1.209배) 해당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의 7차년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력패턴을 탐색하였다. 7년이라는 시간은 개인의 경력패턴을 확인하기에는 다소 짧은 시간이나, 19세부터 25세까지는 전 생애의 안정적인 경력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일반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의 1년 단위의 경력을 ①고등학교 재학(HI: Highschool), ②전문대학 재학(CO: College), ③대학 재학(UI: University), ④대학원 재학(GR: Graduates), ⑤정규직(PE: Permanent), ⑥임시·일용직(TE: Temporary), ⑦실직·포기(EX: Exploring), ⑧미상(UK: Unknown)의 8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이들의 경력패턴은 각각 5개, 4개의 고유한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고 졸업자의 경우 ”Cluster 1: 고졸후 떠돌이형(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한 후, 시간이 지날수록 미상의 상태로 이동)“, ”Cluster 2: 대졸후 취업형/대학재학형(대학에 진학 후, 4~5년간의 중단없는 교육경력을 유지 또는 정규직으로 이동)“, ”Cluster 3: 병역 후 대학복귀형(대학에 재학 중 군입대로 예측되는 2년간의 미상의 상태를 거친 후 대학으로 복귀)“, ”Cluster 4: 전문대 진학 후 떠돌이형(전문대학 졸업 후 미상의 상태로 남겨지거나, 전문대학 재학연한이 길고 중간 단절이 빈번하게 나타남)“, ”Cluster 5: 전문대 졸업 후 취업형(전문대학에 진학하여 2~3년간 재학한 후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의 5개 유형의 경력패턴이 확인

되었다.

둘째,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우 “Cluster 1: 대학재학형(대학에 진학한 후 교육경력을 계속 유지하거나, 2년 정도의 공백, 대학에 진학한 남학생과 여학생 혼재)”, Cluster 2: 고졸 후 떠돌이형(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전문대학, 정규직 등 다양한 진입 경로를 갖고 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상의 상태로 이동)“, ”Cluster 3: 고졸후 취업형(전문대학 졸업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노동시장으로 이행)“, ”Cluster 4: 전문대학 및 미상 혼합형(군대, 학교전환 등의 이유로 전문대학의 재학이 계속 유지되거나 미상의 상태가 혼재)“의 4개 유형의 경력패턴이 확인되었다.

셋째, 일반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력패턴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몇몇 변인들이 확인되었다. 먼저 일반고 경력패턴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성별, 가정특성, 수학성적, 교육포부, 자신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변인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성별이 모든 유형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특성화고 경력패턴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성별, 가정특성, 전공 및 자격증, 교육포부, 리더십, 가정경제수준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의 경우 일반고에 비해 영향력이 약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일반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력패턴 유형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일반고의 경우 그 격차가 더욱 크게 드러났는데, 이는 병역의무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생기는 공백의 유무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연구의 경우 7년간의 다소 짧은 경력기간을 토대로 경력패턴을 유형화한 것이기 때문에 2~3년간의 공통적인 경력공백은 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여학생에 국한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력상태를 기반으로 경력패턴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유형과 관련된 변인을 확인한 결과 그 내부는 서로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일반고 졸업자와 특성화고 졸업자 모두 “고졸후 떠돌이형”의 경력패턴 유형이 도출되었으나, 일반고 졸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학 등 긍정적인 방향에서의 “미상” 상태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고교시절 수학성적이 높을수록(1.625배), 교육포부가 높을수록(2.095배), 고졸후 떠돌이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에 특성화고의 경우 분리가정일수록(1.97배), 자격증 개수가 적을수록(1.220배) 해당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일반고 및 졸업자의 “고졸후 떠돌이형”에 속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해당 유형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위 유형을 심층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특성화고 졸업자에게서 발견된 “전문대학 및 미상 혼합형”은 특성화고 졸업후 진학한 학생들의 일부분의 단면을 보여준다. 경력패턴의 최대 길이가 7년이므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이후 경력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교육연한이 짧은 전문대학 졸업자 중 일부는 졸업 후 미상의 상태이거나, 전문대학을 계속 옮기거나 재학 중인 상태를 유지하는 등 다음 경력단계로의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연구에 활용된 패널자료의 특수성상 “미

상”인 상태의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특성화고 졸업자에게서 발견된 취업형 경력패턴을 확인한 결과 일반고 졸업자의 임금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시간 측면에서 일반고 졸업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므로, 시간당 임금수준은 다소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근로형태 및 임금수준에 대해 초점을 두지 않았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시간당 임금수준을 포함한 형태의 취업의 질이 확인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 참고문헌 ❖

- 박가열, 천영민(2009). 대졸자 취업 영향요인 분석. 고용과 직업연구 제3권(1). 한국고용정보원.
- 박진희, 김용현((2010). 경제활동 및 직업이력 유형별 경력개발경로 분석-경력초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용정보원
- 박천수(2010), 대학생의 자격취득이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13권 2호.
- 신종각, 조인호(2008).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를 이용한 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분석. 제1회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심포지엄. 한국고용정보원.
- 이기엽, 최문경(2008). 대학졸업에서 첫 직장까지. 제1회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심포지엄. 한국고용정보원.
- 이승근(2011). 우리나라 전문대학 현황과 선진화 방안. 대학교육체제 개편 12차 연속 토론회 자료집.
- 최수정(2010), 기혼여성의 경력패턴 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bott, A. (1997). "Optimize: Optimal Matching".
- Abott, a., & Tsay, A. (2000). "Sequence Anlysis and Optimal matching Method in Sociology. Review and Prospect.",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29(1).
- Gabadinho, A., Ritschard, G., Mullerm N.S., & Studer, M. (2011), Analyzing and Visualizing State Sequences in R with TraMoneR.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40(4).

❖ Abstract ❖

A Study on Types of Career Patterns of Youth : Comparison Between General and Vocational Highschool Student

Su Jung Choi, Seong Nam Kim

The purpose for this study was to identify and describe career pattern of youth.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on comparison of vocational highschool students' career pattern with those of highschool students. Data from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KEEP) was analyzed by applying optimal matching, clustering analysis and multi-nominal logit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areer patterns of general highschool students clustered 5 types : “Cluster 1: Wanderer after highschool graduation”, “Cluster 2: Work after university graduation/ University attending”, “Cluster 3: University return after military service”, “Wanderer after college graduation”, “Cluster 4: Work after college graduation”.

Second, career patterns of vocational highschool students clustered 4 types : “Cluster 1: University attending”, “Cluster 2: Wanderer after highschool graduation”, “Cluster 3: Work after highschool graduation”, “Cluster 4: Mixed with college attending/change and unknown status”.

Third, types of career patterns of youth were effected by gender, family characters, educational aspiration.

Key words: Type of Career pattern, Optimal Matching, Vocational highschool Students, Career Development